지금 이순간을 관찰 잘 살기위한 수행 도량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12〉 위빠사나수행전문센터 천안호두마을


6월 24일 지도법사 중 한명인 빤디짜 스님이 중앙승가대 팔정도 스터디 멤버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일주일 단위로 수행지도 이어져
마음도 훈련…좋은 마음 쌓으면 행복
보시 · 재행사 없어 재정난 심각

무더운 여름이 오면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간다. 이번 여름 세속의 일로 마음이 복잡하다면 마음의 피서를 가보는 것은 어떨까? 호두마을은 위빠사나 전문수행센터다. 국내 유수의 위빠사나 전문가들이 수행을 지도하는 이곳은 '지금 이 순간 잘 살기 위한 훈련' 을 위한 수행 공간이다.

6월 24일 충남 천안 광덕산 호두마을을 찾았다. 호두마을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위빠사나 명상법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손병옥 씨가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평균 20~30명의 수행자가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법사 스님으로는 서현 스님, 김열권 법사, 아신 빤디짜 스님, 우또다나 스님, 도경 스님 등이 있다.

주지 무문 스님은 "평균 1주일 단위로 법사 스님들이 바뀌어 가며 수행이 진행되고 있다. 지도법사별로 수행지도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일정은 좌선-경행-법문-개별인터뷰 순으로 이루어진다. 꼭 수행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6월 24일은 아신빤디짜 스님의 법문과 개별인터뷰가 진행되는 날이었다. 빤디짜 스님은 "사마타는 선정에서 범천으로, 위빠사나는 청정에서 해탈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며 "위빠사나를 통해 몸과 마음이 바로 이 순간 있는 그대로임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김정숙 보살은 9년전 호두마을 근처로 이사를 올만큼 수행을 생활화 하고 있다. "살면서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인간관계로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심 등 부정적인 마음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수행을 위해 여러 시설들을 다녀봤지만 호두마을 만큼 수행하기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이번 빤디짜 스님 수행 지도 시간에는 특별한 수행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바로 중앙승가대학인스님들로 구성된 위빠사나 수행모임 팔정도 스터디 멤버 14명의 스님들이 그 주인공이다.

팔정도 회장 선재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용적이라고 전한다. "위빠사나 수행은 실생활에 용이성 접근성이 좋습니다. 현대생활에 적합해서 좌선과 경행을 나눠서 하다보면 신체리듬을 지켜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화선이 매우 추상적이라면 위빠사나는 매우 구체적으로 수행의 효과를 빨리 체득할 수 있으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故 고익진 교수를 은사로 오랜 시간 대승불교를 공부했던 정진숙 보살은 호두마을을 통해서 수행의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그리고 현재 빤디짜 스님을 은사로 모시며 위빠사나를 공부하고 있다. 정씨는 위빠사나와 간화선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호두마을에서 9번의 집중 수행을 하고 빤디짜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하고 있던 좌선이 위빠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간화선의 화두도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결합한 형태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의 기쁨을 안겨주는 곳이 호두마을이지만 이곳의 재정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 주지 무문 스님은 "한 개인의 원력으로 조성된 곳이 호두마을이다. 하지만 보시나 제사가 있는 일반 사찰과는 개념이 다르다 보니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이 늘 부족하다. 특히 호두마을이 성립된지 15년이 되어가다보니 건물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원력을 가진 후원자가 나타나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다.


천안 호두마을 전경

무더운 여름 마음의 힐링을 하고 싶다면 호두마을로 떠나보자. 그곳에서 나의 내면을 닦아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041)567-2841 정혜숙 기자

대중이 생각하는 행복은 음식에 빠진 '똥' 과 같아

위빠사나 수행지도자 빤디짜 스님



"대부분의 중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맛있는 음식에 빠진 똥과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똥이 빠져 있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 그 행복은 한계가 있는 행복이죠."

아신 빤디짜 스님〈사진〉은 인간들이 쫓는 행복의 허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아신 빤디짜 스님은 현재 부산 담야선원을 설립, 근본불교교리와 위빠사나수행 법문을 지도하고 있으며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기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님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호두마을에 머물며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자애 명상을 통해 매일 매일 좋은 마음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는 연습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마음도 훈련입니다. 좋은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훈련을 통해서 쌓아 나갈 때 행복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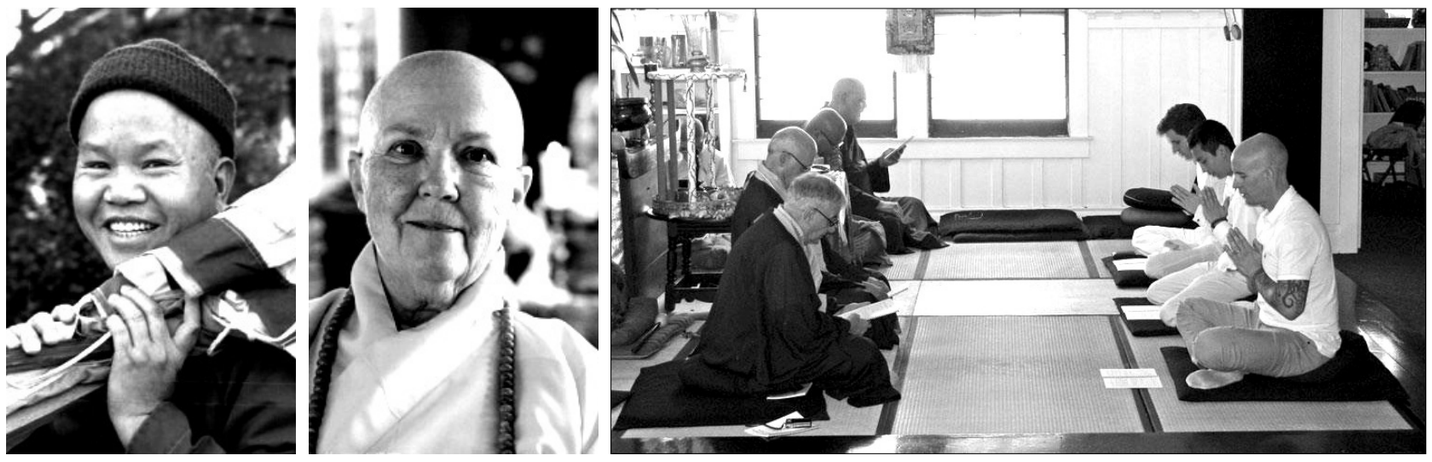
스님은 모든 수행을 크게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나뉠 수 있다고 전한다. "염불 등을 통해 집중 · 몰입을 강조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라면 관찰을 통해서 대상의 본성을 보는 것이 위빠사나입니다. 사마타 수행이 마음 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위빠사나는 지혜를 증장시키죠"

스님은 이렇게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아상이 깨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10〉 미국 국제불교명상센터(IBMC)

상좌부 · 대승 · 정토 · 선종 등 합동 수계…계사 비구니


국제불교명상센터(IBMC)를 설립한 틱 티엔 안 스님(좌)과 법계승자인 카루나 다르마 스님(우). IBMC는 베트남 전통불교를 따르지만 각국의 불교가 혼합돼 국제적 분위기를 풍기는 명상센터로 자리 잡았다.

베트남 학자 틱 티엔 안 선승 설립
각국 불교 혼합돼 국제적 분위기
미국 최초 비구니 카루나 다르마 활약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불교명상센터(International Buddhist Meditation Center, IBMC)는 베트남 불교를 비롯해 상좌부, 정토종, 선종 등 다양한 불교 종파를 흡수해 미국에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IBMC 설립자인 틱 티엔 안(Thich Thien-an, 1926~1980) 스님은 베트남 학자이자 선(禪) 마스터로, 미국에 베트남 불교를 알린 주요 인물이다.

1966년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동양철학과 방문교수로 처음 미국에 와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는 이듬해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불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명상과 불교교리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틱 티엔 안 스님은 1970년 로스앤젤레스 버몬트 거리에 있는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개조해 IBMC를 세웠고, 6개월이 되기도 전에 방문객이 늘어 자리를 옮길 정도로 서구인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센터는 현재 뉴햄프셔 애비뉴에 위치해 있다.

비구니가 계사로 구족계 내리는 곳

국제불교명상센터는 베트남 전통불교를 따르지만 각국의 불교가 혼합돼 국제적 분위기를 풍기는 명상센터로 자리 잡았다.

틱 티엔 안 스님이 1980년 간암으로 입적 하면서 가장 가까운 법계승자인 카루나 다르마(Karuna Dharma) 비구니 스님이 센터를 운영했다.

국제불교명상센터는 미국에서 최초로 비구계를, 1976년에는 비구니계를 주었다. 카루나 다르마 스님은 최초로 비구니계를 받은 인물이었다.

기독교신자였던 카루나 다르마 스님은 18세가 되던 해 교회가 자신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고 UCLA에서 틱 티엔 안 스님의 '불교와 선' 강좌를 듣게 됐다.

그는 틱 티엔 안 스님에게서 온화한 미소와 함께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곧 그의 학생이 됐다.

IBMC는 대수계식을 갖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4년 IBMC는 각기 다른 전통의 계사와 스승들을 30명 모셔놓고 대수계식을 가졌는데, 상좌부불교, 대승불교, 금강승, 정토종, 선종 등 다양한 종파의 비구 · 비구니 스님이 함께 수계 책임을 맡았다. 여성계사(카루나 다르마)가 남녀 모두에게 구족계를 내린 것은 미국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계식은 영어로 진행됐으며 27명의 수계자는 자신의 전통에 맞는 승복을 입고 수계를 받았다. 이후 1997년에 제2차 대 수계식이, 2002년에 제3차 대수계식이 봉행됐다.

카루나 다르마 스님은 1994년 뇌졸중을 겪은 이후로 불편한 몸이 됐지만 불교승가협회(Buddhist Sangha Council) 부회장직과 샤카디타(세계불자여성대회) 창립 회장으로서 활약했다.

카루나 다르마 스님이 2012년 11월 원장 소임을 내려놓은 뒤 스리랑카 출신의 하반폴라 샨티(Havanpola Shanti) 스님이 IBCM을 이끌고 있다.

직장인위한 명상수업, 저가 임대주택 제공

IBMC는 매주 일요일 오전 일요법회를 열어 30여분간 법문을 펼치고 15분 동안 명상수련을 진행한다. 수 · 금 · 일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명상수업도 열고 있으며, 교리수업도 마련됐다. 쿠살라(Kusala) 스님이 매일 오후 7시 IBMC의 설립자인 틱 티엔 스님의 저서 〈Zen Philosophy, Zen Practice(선 철학, 선 수행)〉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IBMC는 수행 뿐 아니라 사회참여활동도 하고 있다. 공동부엌과 욕실을 사용하는 저가의 주택을 제공해 불자 · 비불자 모두에게 임대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수감자들과 편지를 통해 명상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상급학생들 중에는 한 사람이 60명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노숙자들과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위해 매해 핼러윈 파티와 야외음악회를 열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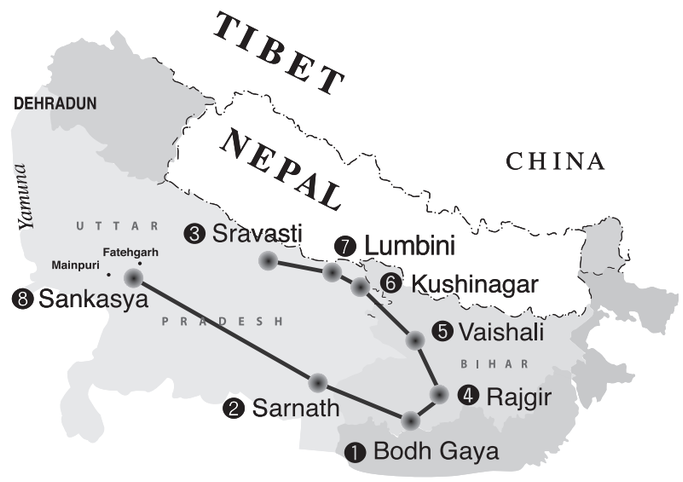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